

누가복음

십자가를 향한 여정

고창현 목사 지음

© 2021 제네바 프레스 판권 소유

이 책의 어느 부분도 출판사의 서면 허락이 없이는 전자나 기계 방식을 포함하여 어떤 형태로든 복사
재생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면 다음의 주소나 웹사이트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resbyterian Publishing Corp., 100 Witherspoon Street, Louisville, Kentucky 40202-1396

www.ppcbooks.com

편집자 박선규 목사

집필자 고창현 목사(토렌스제일장로교회)

감수자 이상현 목사(랄리한인장로교회), 김도훈 목사(뉴헤이븐한인교회)

차례

편집자 노트 / 3

활용법 / 4

인도자들을 위한 지침 / 6

총론 / 8

제 1 과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담긴 메세지	10
제 2 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15
제 3 과	관습과 전통을 깨뜨리신 예수님	20
제 4 과	올바른 지식, 올바른 삶	25
제 5 과	제자의 삶	30
제 6 과	무리와 제자의 차이	35
제 7 과	제자직의 조건	40
제 8 과	아버지의 마음	45
제 9 과	주님의 길을 멈추게 한 사람들	50
제 10 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55
제 11 과	수제자에게 부인당하신 예수님	59
제 12 과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64
제 13 과	증인의 삶을 살라	69

신앙 생활은 한 마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인생의 주인이 ‘자기’로부터 ‘예수님’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the Lord)이라 부르는 이유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눅 9 : 23). 또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고(마 10 : 38),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눅 14 : 27).

신앙 생활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거나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는가?

당신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님은 본인이 먼저 행하지 않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다. 비록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것은 공생애 마지막 순간이었지만, 사실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다. 복음서들 중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이 이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킹덤 라이프: 누가복음”은 당신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삶, 즉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실천할 수 있는 도전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쁜 목회 일정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해 이 교재를 집필해 주신 토랜스 제일장로교회 고창현 목사님께 감사를 표한다.

켄터키 루이빌에서
박선규 목사

“킹덤 라이프”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며,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핵심이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배우고 훈련하기 위한 나눔식 소그룹 성경공부 교재이다. 말씀에 기초한 생각들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깨달은 바를 실천해 나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변화되어 가도록 하는 것이 이 교재가 지향하는 목표이다.



마음 열기

그날에 공부할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서 일상 속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먹한 분위기를 깨고 서로를 향해 그리고 말씀을 향해 마음이 열리게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말씀 듣기

성경을 천천히 읽고 듣는 가운데 본문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 보는 단계이다.

1. 말씀 듣기는 두 번으로 되어 있다. 처음 읽을 때는 본문을 다 함께 읽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읽기 전에 배경 설명과 도움말을 먼저 읽은 후에 본문을 읽는다. 두 번째 읽을 때는 책 안에 있는 지시를 따라 읽고 경청한다.
2. 본문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느낌과 인상을 얻는다.



말씀 깨닫기

1. 말씀 깨닫기에 나오는 4개의 질문들은 성경 본문을 하나의 플롯으로 보도록 고안된 관찰 질문들이다.
2. 질문에 대한 답은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도록 했지만, 간혹 배경설명이나 도움말을 참조해야 할 때가 있다.
3. 인도자 교재에는 성경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질문들 외에 점점 심화되는 추가 질문(해석 질문)들이 나와 있다. 인도자가 모임을 나눔 식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참가자들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에 기초한 깨달음(encounter)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말씀 따라 살기

1.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해 나누는 과정이다.
2. 첫 번째 질문은 개인에게, 두 번째 질문은 공동체(교회, 이웃, 나라, 세계)에 적용하는 질문이다.
3. 말씀 깨닫기 단계에서 본인이 직접 깨달은 것이 있다면 교재에 실린 실천사항 대신 그것을 실천해도 좋다.

1. 인도자는 가르치는 자(teacher)라기보다 참가자들이 말씀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진자(facilitator)임을 명심하라. 따라서 답안지를 읽어 주거나, 답을 길게 설명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도록 하라.
2. 그날의 모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며, 참가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라.
3. 각 단계별 지침 : 1시간을 기준으로 세 단계로 나누었다.



말씀 깨닫기 위한 준비(15분)

1. 인도자를 위한 이 과의 목표 : 참가자용에는 기록해 놓지 않았다. 참가자들이 목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인도자는 이 목표를 염두에 두고 모임을 인도해야 한다.
2. 오늘의 말씀/찬송/기도
3. 지난 주 말씀 적용한 것 나누기 : 말씀에 기초한 생각들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깨달은 바를 실천해 나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이 교재가 지향하는 목표이다. 따라서 참가자들에게 말씀 따라 살기에서 실천하기로 결단한 것을 한 주간 꼭 실천하도록 도전하고, 실천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라. 다만, 시간을 염두에 두면서 한두 사람 정도 나누게 하면 좋을 것이다.
4. 마음 열기 : 시간을 염두에 두면서 한두 사람 정도만 나누게 한다.
5. 말씀듣기 1, 2 : 첫 번째 읽을 때는 본문을 다 함께 읽도록 하라. 그런 후에는 한 사람에게 배경설명과 도움말을 읽게 하여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도록 하고, 두 번째 읽을 때는 교재에 나와 있는 지시에 따라 읽고 경청하게 하라. 말씀 듣기의 목적은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면서 본문의 전체 내용을 머릿속에 그려 보게 하는 것이다. 마치 하늘에서 숲을 보는 것과 같이 말이다.

인도자들을 위한 지침



말씀 깨닫기(30분)

참가자용에는 네 개의 관찰 질문들이 있고, 인도자용에는 관찰 질문들에 기초한 해석 질문이 추가되어 있으며, 또한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는 질문이 따라 나온다. 이렇게 말씀 깨닫기 항목은 본문이 의미하는 것을 깨닫고, 또한 본문이 현재의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깨닫게 하는 이중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인도자 지침에 나와 있는 답을 읽어 주어서는 안 된다. 인도자가 답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참가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매 질문마다 모든 참가자들이 답하게 할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들의 답을 듣는 것만 해도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 시간이 허락된다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라.



말씀 따라 살기(15분)

첫 번째 질문은 개인에게, 두 번째 질문은 공동체에게 적용하도록 고안되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보고, 그 말씀을 한 주간 어떻게 실천해 볼지 나누어 봅시다.”와 같은 유형의 질문을 하라. 이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첫 번째 개인 적용을 위한 질문을 건너뛰게 해도 된다. 이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질문에 답하게 하고, 그것을 한 주간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 두 번째 공동체 적용을 위한 질문은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소그룹이 함께 실천하거나, 또는 개인이 공동체(교회, 기관, 지역사회)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다.

사복음서 중 가장 긴 복음서인 누가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비해 좀 더 독립적이고, 독특한 이야기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일반 청중들을 위해 쓰여진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단 한 명의 독자인 ‘데오빌로 각하’를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기에 더욱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듯하다(눅 1:2). 헬라어에 능숙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의사 누가는 세련되고 품격높은 헬라어를 구사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하게 소개한다(눅1:1-2).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을 포함하고 있는 누가복음 1-2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눅 1:5-25)나 수준 높은 헬라어로 묘사된 마리아의 찬가(눅 1:46-56)는 누가복음만의 특징을 서두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준다.

누가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갈릴리에서 출발하여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여정’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누가복음 4:14-9:50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 그후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을 보여준다. 결국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와 예루살렘을 향해 굳세게 걸어가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여정으로 소개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신앙 여정도 예수님처럼 이런 십자가의 여정이 되어야함을 의도하는 듯하다.

누가에 의해 기록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하편과 같아서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보여준다면, 사도행전은 그 길을 따라간 사도들의 삶을 보여준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신 예수님의 길(the way)을 통해 우리가 가야할 제자의 길을 보여주는 매우 도전적인 복음서라 할 수 있다. 이 복음서를 함께 여행하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고, 우리도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소망해 본다.

서론: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

제 1 과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담긴 메세지(1 : 26-18; 2 : 1-14)

제 2 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3 : 1-17)

갈릴리에서의 사역

제 3 과 관습과 전통을 깨뜨리신 예수님(5 : 27-39)

제 4 과 올바른 지식, 올바른 삶(7 : 18-35)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제 5 과 제자의 삶(9 : 51-62)

제 6 과 무리와 제자의 차이(12 : 1-9)

제 7 과 제자직의 조건(14 : 25-35)

제 8 과 아버지의 마음(15 : 1-3, 11-32)

제 9 과 주님의 길을 멈추게 한 사람들(18 : 35-19 : 10)

예루살렘에서

제10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19 : 28, 36-38, 45-48; 20 : 1-2, 19; 22 : 1-6)

제11과 수제자에게 부인당하신 예수님(눅 22 : 54-62)

제12과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눅 23 : 26-43)

제13과 증인의 삶을 살라(눅 24 : 36-49)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담긴 메시지

— 인도자를 위한 이 과의 목적 :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깨닫고, 주님께서 지향하셨던 삶을 추구하며 살기로 결단하게 한다.



말씀 깨닫기 위한 준비(15분)

오늘의 말씀 : 누가복음 1:26~38; 2:1~14

찬송 : 114장(통114장 그 어린 주 예수)

기도 : 인도자 혹은 자원자

지난 주 말씀 적용한 것 나누기

마음 열기 : 각자 자신이 태어나 성장한 곳에 대해 간단히 나누어 봅시다.

말씀 듣기 1 : 본문을 다 함께 읽어 봅시다.

배경설명 및 도움말 : 인도자가 읽거나, 혹은 미리 숙지해 온 것을 설명해 줌으로써 참가자들이 두 번째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도록 해줍니다.

배경 설명 :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 동방박사들의 등장과 헤롯왕의 대립구조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은 인구 조사를 위해 황제 아구스도(Caesar Augustus)가 내린 칙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누가는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전하려고 노력했다. 실제 역사 기록에 의하면 아구스도의 재임 기간 동안 로마는 제국의 여러

Kingdom
Life



곳에서 행정을 재편성하고 과세를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했다고 한다.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관련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리고 양 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소개해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도움말 :

- 여종(1 : 38, 헬 : 둘레) : 주인의 뜻을 결코 거스를 수 없는 하녀를 의미함.
- 가이사 아우구스토(2 : 1) :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 구유(2 : 7, 12, 헬 : 파트네) : 보통 짐승에게 먹이를 주는 통을 의미함.
- 목자(2 : 8) : 신약 시대에는 거지나 도둑과 같이 소외되고 천대받음.
- 다윗의 동네(2 : 11) : 베들레헴(삼상 16 : 1, 17 : 2).
- 구주(2 : 11, 헬 : 소테르) : 구원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붙여졌던 칭호임.
- 그리스도(2 : 11, 헬 : 크리스토스) : 기름 부음 받은 자.
- 주(2 : 11, 헬 : 퀴리오스) : 주인(master).

말씀 듣기 2 : 한 사람이 다시 천천히 읽고 나머지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강조되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경청합니다.



말씀 깨닫기(30분)

1. 가브리엘 천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그 아이를 어떤 자로 소개하며,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1 : 26-34)

- 1) 이름은 예수로서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며,
- 2)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고,
- 3)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라고 소개한다.

그러자,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마리아의 반문에 천사는 어떻게 대답하며, 이러한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다시 어떻게 반응합니까?(35-38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는 마리아의 반문에, 천사는 성령이 그녀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녀를 덮어서 그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런 후에 태어나실 분은 거룩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는 말을 다시 언급한다. 또한 마리아에게 확증을 주기 위해 그녀의 친족으로서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엘리사벳이 임신한지 여섯 달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해준다. 그러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응답한다. 즉,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그리고 자기는 주인의 말을 결코 거스를 수 없는 하인으로 표현하면서 천사가 전해준 주인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응답한다.

마리아의 이러한 반응은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음을 시사해줍니까?

겸손한 사람(자신을 종으로 생각하고 있음), 용기 있는 사람(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믿음의 사람(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 그대로 받아들임)...

하나님의 말씀들 중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했던 말씀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2. 아기를 잉태한 채로 정혼한 요셉과 함께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호적 신고를 위해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마리아는 어디에서 아기 예수를 낳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장소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까?(2 : 1-7)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 대신 마구간에 묵었다거나 거기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짐승들의 먹이를 주는 구유에 눕었다는 기록은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음을 암시해준다. 또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7절)라는 말씀은 당시 호적 조사로 인해 베들레헴에 방문자가 많았고, 이로 인해 여관에 묵을 빈방이 없었음을 암시해 준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장소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까?

마태복음이 동방 박사들에게 경배를 받는 예수님의 탄생기사를 기록했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삶의 첫 자리가 구유였다고 기록함으로써 메시야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준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들, 그리고 자주 머무신 장소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구유’와 닮았다. 예수님의 친구들은 주로 세리와 죄인이었다(눅 5 : 30, 7 : 34, 15 : 1, 19 : 1~10). 이렇게 메시야가 매우 초라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높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낮고 천한 곳을 지향하셨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높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낮고 천한 곳을 지향하셨다는 것은 그를 따르는 당신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3. 주의 사자는 누구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었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했습니까?(2 : 8-12)

주의 사자는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주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다. 주의 사자는 막 태어나신 예수님을 구주와 그리스도 주로 소개한다. 구주는 구원자라는 뜻으로서 구약에서 주로 하나님께 붙여지는 칭호이다. 마리아는 앞에서 하나님을 구주라고 부르며 찬양하기도 했다(눅 1 : 47 참조). 그리스도는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분으로 기대하던 메시야를 의미한다. 주는 주인이라는 뜻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숭배하던 로마 황제가 아니라 막 탄생하신 메시야가 진짜 ‘주’라는 의미이다.

**은 세상을 위한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큰 기쁜 소식이
목자들에게 맨 먼저 전달되었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도움말 참조)**

하나님은 온 세상을 위한 구주의 출생지로 수많은 곳들 중에서 낮고 천한 곳을 선택하셨다. 그렇다면 이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야 할까? 이 기쁜 소식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당시 낮은 사회적 신분을 지니고 천한 대접을 받으며 살던 목자들을 선택하셨다. 이러한 선택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낮고 천한 곳을 지향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당신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해 처음 듣게 되었고,
당신에게 처음 예수님에 대해 전해준 사람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해 주었습니까?**

4.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부르는 찬양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 내용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2 : 14)

14절을 보면 찬양의 대상은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 것이다. 찬양의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내용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것이다. 참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보낸 그리스도(메시아)를 믿고 받아드린 사람들이다. 그래서 일부 영어 성경(NIV and NRSV)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to those on whom his favor rests”)이라고 번역해 놓았다.

이 찬양의 내용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 그리고 인간들 사이의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
그리고 인간들 사이의 평화를 위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 따라 살기(15분)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나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믿어지는 말씀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한 주간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1.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낮고 천한 곳을 지향하셨던 것을 본받아 당신이 실천하며 살아야 할 일들에 대해 나누어 보고, 한 주간 그 중 적어도 한 가지를 실천해 봅시다.

우리 인간의 죄된 속성은 낮은 곳을 지향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 섬김을 받으려 한다. 한 주간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해 보자.

2. 우리 주변에 소외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우리 소그룹이 그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누어 보고 실천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기쁜 소식이 소외 당하고 천한 대접을 받던 목자들에게 맨 먼저 전해진 것과 같이, 우리 주변에 소외 받거나 천한 대접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 기쁜 소식을 전할 방법을 생각해 보자.